'설마설마'한 사이 … 광주 초등생 學暴 3년새 22배 늘었다

광주·전남, 폭행 가장 많고 공갈·약취 유인 등 다양

교육당국의 강력 대처로 중·고생 학교폭력은 주춤

학교폭력이 초등학교로 급속히 번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의 강력한 대처로 광주·전남지역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은 주춤하고 있지만, 초등학교는 오히려 폭증했다. 이는 초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단 1명도 배치하지 않는 등 사실상 초등학교를 방치한 결과로 분석된다.

26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받아 공개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최근 3년 사이에 79.2%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0년 956명에서 2011년 1902명으로 크게 늘었다가 지난해 1713명으로 소폭 줄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학교폭력이 폭증했다. 지난 2010년 9명에 불과했던 가해학생이 2011년 108명, 지난해 196명으로 3년새 무려 22배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학생은 709명에서 1174명으로 65.6%(465명), 고등학생은 238명에서 342명으로 43.7%(104명) 늘어났다.

가장 흔한 학교폭력 유형은 '폭행'이었다.

지난해 발생한 광주지역 학교폭력 1713건 중 36.7%인 628건이 폭행이었고, 공갈(금품갈취) 176건(10.3%), 명예훼손·모욕 60건(3.5%), 약취·유인 57건(3.3%), 따돌림 54건(3.2%),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51건(3.0%)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학생 선도방법은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총 2630건 중 30.2%(79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면사과 520건(19.8%), 학교봉사 429건(16.3%), 사회봉사 305건(11.6%), 접촉·협박 보복행위 금지 297건(11.3%), 출석정지 161건(6.1%) 순으로 나타났다. 전학을 보내거나 퇴학 처분을 내린 학생은 각각 90명과 2명이었다.

전남지역 학교폭력은 줄지 않았다. 가해 학생이 2010년 775명에서 2011년 345명, 지난해 2077명으로 급증했다. 무려 2.6배 이상 치솟았다. 특히, 초등학교의 증가 폭이 컸다. 2010년 23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6.7배나 늘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지만 교내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미흡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 3월 기준으로 전체 292개 학교 중 전문상담교사는 60명으로, 배치율은 20.6%에 불과했다. 전남은 이보다 훨씬 못 미쳐 전체 830개 학교에 고작 64명(7.7%)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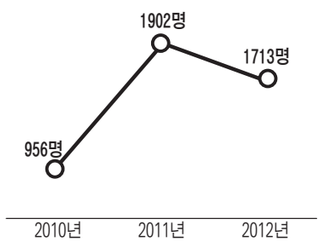
특히 초등학교에 배치된 상담교사는 광주·전남 모두 단 1명도 없었다. 학교폭력 예방과 전문상담 활동이 초등학교에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안민석 의원은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도 높아가고 있다"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전문 상담사를 증원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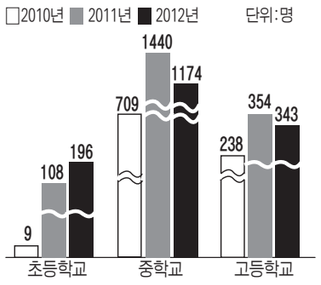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지역 학교폭력 가해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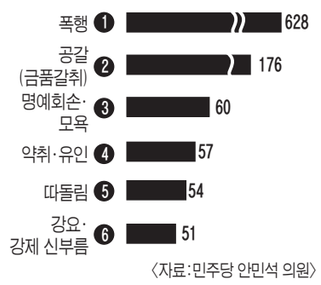
〈매년 3월1일~이듬해 2월 28일〉



■학교급별 가해학생 변화



■지난해 학교폭력 유형 (단위:건)



〈자료:민주당 안민석 의원〉

"선생님~ 보고싶었어요" 여름방학을 마치고 26일 개학한 광주시 서구 유촌동 극락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오랫만에 만난 선생님을 껴안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jeans@kwangju.co.kr

백양사가 시끄러운 까닭은?

주지 임명권 가진 방장에 지선 스님 추대 싸고

일부 스님들 반발 폭력 휘둘러 … 경찰 수사나서

천년 고찰 백양사가 사찰 최고 어른이자 주지 임명권을 갖고 있는 '방장'(方丈) 추대 문제로 소란스럽다. 폭력 사태가 잇따르는데다, 방장 추대 과정에서 '분신설'까지 제기되면서 산사가 시끄럽다.

혼란은 백양사 3대 방장인 지종 스님이 지난해 3월 7일 입적한 뒤부터 일기 시작했다. 이후 두 스님이 방장으로 추대됐지만 모두 고사하면서 여태껏 공석으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백양사 측은 오랫동안 방장 자리를 계속 비워둘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는 30일 산중 총회를 열고 새로운 방장을 추대할 계획을 세워놓았다. 사실상 그동안 방장 직무 대행을 맡아온 지선 스님이 방장으로 추대될 것이 유력하다는 게 불교계 설명이다.

하지만 백양사 내 일부 스님을 중심으로 지선 스님의 추대를 못마땅해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갈등이 생기더니, 급기야 사찰 내에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다.

장성 경찰은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께 백양사 쌍계루 앞길에서 지선 스님의 방장 추대를 반대하는 유인물을 돌리다 제지하는 다른 스님과 말다툼을 벌이고 서로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24일 방장 추대와 관련, 견해가 다른 스님을 폭행한 혐의로 M 스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보조금 횡령 복지법인 직원 구속

곡성경찰은 26일 지출 서류 등을 허위로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온 〈광주일보 7월22일 7면〉 사회복지법인 곡성 S기관 회계 담당자 김모(여·28)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운영비 관련 지출결의서, 출금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 돈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약 40개월간 179차례에 걸쳐 국고 보조금 2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성인용품점 전시 음란물 무죄 수긍 못해"

광주지검, 항소키로

검찰이 여성 성기 모양 물건을 음란한 물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법원 판결〈광주일보 8월 21일 6면〉에 불복, 항소했다. 대법원 판례와 사뭇 달라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지만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도 감지된다.

광주지검은 여성 성기 모양의 성생활 보조용품을 전시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9)씨 등 성인용품점 업주 6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부 판결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분명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판결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판결대로라면 대법원이 지난 2003년 5월 "음란한 물건인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모조 여성 성기를 음란한 물건으로 판단한 판례와도 온도차가 확연하다.

다만, 대법원이 당시 사건 속 남성용 자위기구를 설명하면서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그것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킬 수 있고…"라고 적시한 점을 고려하면, 여성 성기 모양의 세밀함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될만하다. 경찰의 실적쌓기용 무리한 단속의 결과 였는지, 검찰의 치밀하지 못한 기소였는지,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항소심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부산 여자 초등생과 음란문자

광주로 불러 성관계 30대 검거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부산의 여자 초등학생과 음란한 문자를 주고받다가 급기야 광주광역시의 모텔로 불러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은 26일 10대 아동과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3)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3일 새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모텔에서 초등학생 A(12)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월께 스마트폰 채팅사이트에서 부산에 사는 A양을 알게 됐고 이후 5개월간 3천건이 넘는 동영상, 사진,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특히 김씨는 노골적으로 음란한 자세 등을 요구했고 A양은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씨는 급기야 가출하면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주고 보호해주겠다고 말하며 A양을 광주까지 유인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연합뉴스

"옷 너무 야해" 여친 때린 조폭

쌍나팔

○…여자친구의 옷차림이 지나치게 야하다며 주먹을 휘두른 '보수적인' (?) 조폭이 경찰서행.

○…2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충장OB파 행동대원 고모(20)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앞길에서 여자친구 A(여·20)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에서 고씨는"아무리 더운 여름철이라고 하지만 여자 친구가 웃옷 상의 단추를 너무 많이 풀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 화가 났다"고 진술.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국/가/공/인
한문지도사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생 모집

① 연수일정(2013년 제11기)
· 개강일시 : 2013. 9. 2(월) 기초오후 14:00 기초야간 18:30
심화오후 14:00 심화야간 18:30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3. 8. 1(목) ~ 2013. 8. 31(토)
· 수업기간 : 2013. 9. 2(월) ~ 2013. 12. 20(금) (총 90시간)
· 수 강 료 : ₩360,000
● 모집인원 : 기초오후반 : 30명 기초야간반 : 30명
심화오후반 : 30명 심화야간반 : 30명
※ 기초반 수료자는 자동적으로 다음 학기에 2단계 심화과정으로 진급하고, 기초반 수료정도의 실력이 인정되는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심화반 편입 가능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금요일
오후반 : 14:00~17:00 야간반 : 18:30~21:00
● 수료 후 특전
· 1,2단계(기초, 심화) 연수과정 수료시 총장 발급 수료증 수여
· 1,2단계(기초, 심화) 수료시 한문지도사 자격증 2개 동시 취득 기회 부여
① (사)한국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한문지도사(민간자격)
② 국가공인 기관장 발급 한문지도사(국가공인자격)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 급수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한문학원 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추천

② 원서교부 및 접수처(토,일 공휴일 휴무)
· 전화 (062) 530-3873~3876
담당교수 : H.P 010-2611-1171, 011-9712-1378
· 광주은행: 074-107-004114 (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CENTER
http : //sle.jne.go.kr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KT ● ●중앙초교
계림동 금남로
대한생명 ●
구.한미쇼핑 ●
동부소방서 ▼
주차장 입구
고객 주차장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227-7575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130-증-2696호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SINCE 1988
chiman.co.kr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욕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광산구 381-0061 서 구 352-7788 남 구 676-7719 북 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 천 744-8605 여 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